

난민 문제 작품 속으로, 제3세계 세상 밖으로

21 June, 2016 | 신은별 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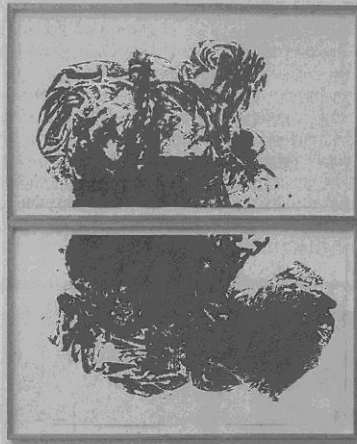
아트비젤을 통해 본 세계 미술계 트렌드

난민 문제 작품 속으로 제3세계 세상 밖으로

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아트페어 '바젤국제아트페어(아트비젤)'가 19일 막을 내렸다. 올해로 47회를 맞은 아트비젤에는 전 세계 33개국, 286개의 갤러리가 참여했다. 세계 미술시장 전반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6일 동안 9만5,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성황이었다.

올해 아트비젤에서는 유럽 난민 등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 예술적으로 승화된 작품이 두드러졌다. 덴마크 작가 E.B. 잇소(E.B. Itso)는 북아프리카 난민을 주제로 한 작품 'Shedding' (2015)을 선보였다. 과거에서 벗어 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낫 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어던지는 난민. 잇소는 그들의 흔적을 푸른 색 물감으로 캔버스에 표현했다. "아주 끔찍한 장면을 아름답게 시각화했다"는 평을 받은 그의 작품의 수익금 중 일부는 관련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.

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30대 젊은 작가 샘슨 영(Samson Young)은 시위 대 해산에 주로 사용되는 음향대포(Long Range Acoustic Device, L-RAD), 홍콩 경찰 제복을 입은 배우, 세 소리 등을 포함한 퍼포먼스 작품으로 홍콩 이주민 문제를 암시해 눈길을 끌었



▲피난민들이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벗어던진 옷가지들을 이용해 제작한 E.B. 잇소의 작품 'Shedding' (2016).

▶라파엘 로차노 해머와 크지슈토프 보디초프의 작품 'Zoom Pavilion' (2015). 전시 공간 내 설치된 12대의 카메라가 관람객의 모습을 끊임없이 기록한다.

◀양해규 작품 '중기유형' (2016).

아트비젤 제공



다. 전시 공간에 들어온 관람객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설치 작품 '줌 파빌리온(Zoom Pavilion, 2015)'은 12개 카메라 기록 앞에 선 관람객이 빅데이터의 위험성 등 사회 문제를 인식하게 했다. 마크 스피글러이트 바젤 디렉터는 14일 간담회에서 "유럽 내 난민 문제가 심화하는 등) 작년보다 훨씬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현실반영적 성격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또 다른 키워드는 '제3세계'다. 중국, 남아메리카 등 미술 영역에서 제3세계에 머물렀던 국가를 배경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조명받았을

뿐만 아니라 아프리카, 소련의 대형 컬러타들의 페어 참여가 증가하는 등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'세계화'가 일어나고 있음이 증명됐다.

아브라함 크루즈비베가스(Abraham Cruzvillegas) 등 남아메리카 작가의 작품을 대거 출품한 멕시코 시티 소재 쿠리만주포(Kurimanzutto) 갤러리 관계자는 "최근 남미 작가들에 대한 컬렉터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"며 "(그들이 갑자기 발전했다기보다) 많은 작업들을 통해 다져 온 그들의 실력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"이라고 설명했다. "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과 경제적 상황이 작품에 스토리를 입히고 있다"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어졌다. 지

아니 잿지 언리미티드 큐레이터는 1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"제3세계 국가들이 어떤 어휘로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지 주목해야 할 것"이라며 미술시장이 "드디어 '확실하게' 세계화되고 있다"고 강조했다.

한편 폴 매카시(Paul McCarthy), 아니쉬 카푸어 등 이틀만으로 관객의 발길을 잡아 끄는 거장의 작품들도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. 아트비젤 기간 동안 바젤 내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알렉산더 칼더(Alexander Calder) 작품도 대거 출품됐다. 관계자들은 "현재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가의 작품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은 '상업성'을 탐보해야 하는 아트페어에 소개되는 1순위"라며 "시장 경

기에 대한 불안 탓인지 올해는 이미 시장에서 보zun된 작품을 소개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진 듯하다"는 의견을 내놓았다. 아트비젤 축역시 폐막 후 공식자료를 통해 "정치·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'좋은' 작품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이뤘다"는 분석을 발표했다.

미국 출신 미니멀리즘 조각가 솔 르윗(Sol Le Witt) 등 미술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작품들도 많이 재조명됐다. 언리미티드 섹션에 솔 르윗의 작품을 두 개나 올린 지아니 잿지 큐레이터는 "(미술사적 중요성에 비해)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다시 방문해(Re-visit) 살펴보는 것"이라고 말했다.

비젤=신은별 기자